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이미정 젠더폭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출장기간	2022. 9. 5.(월) - 9. 10.(토) [4박 6일]			
출장지	영국, 밀턴 케인즈			
출장목적	한-영 인문사회과학 연결 프로그램 (UK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 arts, and humanities connections) 후원으로 진행된 [영-한 디지털&온라인 폭력]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향후 협력 방안 모색			
경비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기관	영국 Open University			
출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디지털&온라인 폭력 실태 및 정책을 소개하고 영국 및 기타 국가 전문가들과 국제적 차원의 디지털&온라인 폭력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 2차년도 계획 논의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영국 Open University 주최 국제학술대회 (Digital and Online Violence: Regional Perspectives) 참가
를 위한 영국 출장

출장 복명서

2022. 9.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1

출장 개요

□ 기간: 2022. 9. 5.(월) - 9. 10.(토) [4박 6일]

□ 장소: 영국, 밀턴 케인즈 (Horwood House Hotel)

□ 출장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이미정 젠더폭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출장배경 및 목적:

가. 영국의 연구혁신기구(UKRI)는 2021년 英경제사회사회연구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와 예술인문연구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가 후원하는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함.

※사업명 및 예산: **한-영 인문사회과학 연결 프로그램** (UK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 arts, and humanities connections; 총예산 £1,500,000)

나. 본 프로그램은 과거 제한적이었던 한국과 영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영 연구진 간 연구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 자원의 확보 및 연구효과성 증대, 해외 위상 제고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6개 국책(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음.

다. 본원이 영국 Open University와 협력하여 [영-한 디지털&온라인 폭력]을 주제로 제출한 국제 공동연구 제안서가 채택되어, 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2월-2023년 9월 중에 영국과 한국에서 각 1회 디지털&온라인 폭력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임.

라. 1차년도 학술대회는 2022년 9월 6-9일에 영국 밀턴 케인즈에서 개최됨. 본 학술대회는 한-영 양국의 디지털&온라인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

-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의 개념 정의
-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
-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 대응정책
- 교차성과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
- 온라인 혐오표현
- 온라인 괴롭힘
- 사이버스토킹

마.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학술대회에 본원의 이미정 젠더폭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과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온라인 폭력 실태 및 정책을 소개하고 영국 전문가들과 국제적 차원의 디지털&온라인 폭력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9/5 (월)	○ 출국: KE 907 인천 11:05 ○ 런던도착 (런던 17:25) ○ 런던 히드로 공항 - 밀턴 케인즈 이동	인천 ⇒ 런던
9/6 (화)	○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방안 논의 -오전: 1차 한-영 연구진 간담회 (2022년 학술대회 논문집 발간 관련) -오후: 2차 한-영 연구진 간담회 (2023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2차년도 학술대회 기획 관련)	밀턴 케인즈
9/7 (수)	○ 학회 참석 -오전: 세션1 대학원생 세션 -점심: 학회 관계자 전체 오찬 -오후: 세션2 지역 사례: 아프리카 & 중동 세션3 지역 사례: 대한민국 -저녁: 학회 관계자 만찬 및 전체 토론	밀턴 케인즈
9/8 (목)	○ 학회 참석 -학술대회 세션 발표 및 토론 -오전: 세션4 유럽 사례 & 대안적 공간 -점심: 학회 관계자 전체 오찬 -오후: 세션5 온라인 폭력 대응 -저녁: 학회 관계자 만찬 및 전체 토론	밀턴 케인즈
9/9 (금)	○ 오전: 학회 관계자 평가/피드백 회의 ○ 밀턴 케인즈 - 런던 히드로 공항 이동 ○ 출국 KE908 런던 19:35	런던
9/10 (토)	○ 인천도착 (인천 15:45)	인천

2

업무협력 회의

1. 한-영 연구진 간담회(1차)

□ 일시: 2022.9.6(화), 11:00~13: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이미정 젠더폭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Kim Barker (교수), Olga Jurasz (교수)

□ 주요내용

○ ObserVAW 젠더폭력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및 향후 계획 공유

○ 2022 학술대회 논문집 발간 계획

– 국제저널 특별호 기획. 2023년도 상반기 발간 목표

– 추후 기타 출판물 발간 계획 논의

2. 한-영 연구진 간담회(2차)

□ 일시: 2022.9.6(화), 15:00~17: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이미정 젠더폭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Kim Barker (교수), Olga Jurasz (교수)

□ 주요내용

○ 2023 학술대회 관련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주제 및 패널 구성

– 국내 기관 방문 검토

○ 2023년도 하반기 영국 연구진 방문일정 논의

– 연구과제 종료 전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방문 일정 협의

– 연구과제 종료 후 추가 연구비 수주를 위한 계획 논의

3

디지털 & 온라인 폭력 국제 학술대회

□ 일시: 2022.9.7.(수)~9.8.(목)

□ 세부일정

일시		구분
9.7(수)	10-10:30	참가자 도착 및 환영
	10:30-12	1. 대학원생 세션

		<p>-Eisha Choudhary. Tech mediated misogyny and gender-based violence on digital platforms impacting economic lives of Muslim women in India.</p> <p>-Lien Stolle, Ghent Universit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online intimid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online intimidation tactics used against environmental defenders with the aim of silencing them.</p> <p>-Angelica Fernandez, University of Luxembourg. An EU- level response for deepfakes: Beyond revenge porn.</p> <p>-Demelza Luna Reaver, UCL. An indicator of high-risk of homicide: Technology facilitated abuse within Domestic Homicide Reviews in England.</p>
	12-13	오찬
	13-15	<p>2. 지역 사례: 아프리카 & 중동</p> <p>-Siphwe Phoya Mchenga, Law Commission Malawi. The protection of women from online violence in Malawi.</p> <p>-Tara Harris, The Independent Institute for Education South Africa. Adolescent sexting: when does it become online victimisation?</p> <p>-Nora Noralla, Cairo 52 Legal Research Institute / ILSC Milan. Shrinking spaces: Inside MENA's queer cyber space.</p>
	15-15:30	휴식
	15:30-17	<p>3. 지역 사례: 대한민국</p> <p>-Jiso Yoon, KWDI. Digital and online violence in South Korea: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p> <p>-Hyo Won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re. Holding bystanders/mere participants accountable: In the context of the "Nth Chat Room Case" in South Korea.</p> <p>-Mijeong Lee, KWDI. Protecting child and youth victims of online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 Korea.</p> <p>-Minjeong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line gender-based hate speech in South Korea: Reframing the issue</p>
	19	만찬
9.8(목)	10-12	<p>4. 유럽 사례 & 대안적 공간</p> <p>-Elisabetta Stringhi, ISLC Milan. The Italian approach to tackling non-consensual dissemination of intimate images.</p> <p>-Goran Livazović & Igor Vuletić, University in Osijek Croatia. Sexting as a form of adolescent online violence: empirical findings from the Croatian perspective.</p> <p>-Emma Bond & Andy Phippen. Tackling digital and online violence at UK universities – using evidence-based approaches.</p> <p>-Danielle Borges (EUI) & Renata Vaz-Shimbo. Disinformation as a trigger for polarisation and online violence: the 2018 presidential elections in Brazil and the way forward.</p>
	12-13	오찬
	13-15	5. 온라인 폭력 대응

		-Holly Taylor-Dunn, Open University. Policing domestic abuse cyberstalking – key lessons from a pilot project evaluation. -Ángel Gordo López & M. José Rubio Martín,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Beyond the algorithm: The institutional basis of digital gender violence. -Roni Rosenberg, Ono Academic College Israel. Online sexual violence and the implications on the victims
	15-15:30	휴식
	18:30	만찬

세션 1

대학원생 세션

- 첫 번째 ‘대학원생 세션’은 온라인 폭력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음. 먼저 Eisha Choudhary는 인도의 온라인 공간에서 자행되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발표하였음. 선행연구는 인도의 무슬림 여성 경영인들이 온라인 폭력을 계기로 자기 검열을 하고 신망을 공개하지 않거나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연구는 인도 뉴델리의 여성경영인 10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생계 활동을 함에 있어 디지털 공간을 탐색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 온라인 폭력이 인도 무슬림 여성경영인들의 온라인 참여와 생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함.
- 두 번째로 Lien Stolle은 최근 증가한 환경운동가에 대한 온라인 폭력을 주제로 발표함. 정보 공유 및 연대활동을 위해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 역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환경권 등 민주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 인권에 어긋나며, 방관할 경우 온라인 토론의 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염려가 있음. 온라인 폭력(특히 여성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환경운동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며, 실태조사 역시 부족한 상황임.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운동가에 대한 온라인 폭력 범위, 방식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운동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비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어 세 번째로는 Angelica Fernandez가 딥페이크 범죄 관련 EU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음. 딥페이크 기술이 최근 급속도로 진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염려 역시 심각해짐. 한편,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며 그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딥페이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및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못함. 최근 EU AI법52(3)조가 처음 딥페이크를 정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연구는 해당 조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딥페이크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세션1의 마지막 발표자는 **Demelza Luna Reaver**이었음. 영국에서는 매주 두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6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살인 사건의 19%가 가정폭력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2011년에 도입된 Domestic Homicide Review(DHR)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400개 사례 중에 50개를 분석하여, 기술매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줌.

세션 2 지역 사례: 아프리카 & 중동

- 두 번째 세션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례’라는 주제를 다룸.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Siphwe Phoya Mchenga**는 말라위의 사례에 대해 발표함. 말라위에서 여성들은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OVAW)을 경험하고 있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또는 명예 훼손과 관련된 논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발표는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위의 법/제도를 소개하고, 현재 법적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리셔스 및 가나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말라위의 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발표는 현행 법제도가 말라위의 미래 온라인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함.
- 이어서 **Tara Harris**의 섹스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짐. 섹스팅(Sexting)은 텍스트, 사진, 비디오와 같이 스스로 생성한 음란물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받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청소년 섹스팅은 음란물 관련 법률, 성범죄 및 관련 법, 영화 및 출판법 등에 따라 규제됨. 이러한 법률 중 어느 것도 합의에 의한 섹스팅과 강제 섹스팅을 구분하지 않음. 특히, 섹스팅은 종종 리벤지 포르노의 형태로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으로 발전됨. 한편, 섹스팅은 불안과 우울증, 관계 악화, 사회적 고립, 사이버 괴롭힘, 전통적인 괴롭힘 및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확장됨. 본 연구는 남아프리카 가우텡(Gauteng) 지방에 있는 두 개의 사립 학교에서 섹스팅 경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온라인 피해 관련하여 상당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섹스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각종 요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발표를 마침.
- 마지막으로 **Nora Noralla**의 발표로 세션을 마무리함.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디지털 발전은 소외된 커뮤니티를 위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해주었음. 이러한 디지털 공간의 혜택을 받은 커뮤니티 중 하나가 LGBTQ+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음. 2000년대 초반부터 퀴어들은 Manjam, Grinder 및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통해왔음.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는 온라인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거나, 안티 퀴어 캠페인이 조직되기도 했음. 이라크의 퀴어 살해 캠페인부터 이집트의 소셜 미디어

및 데이트 앱 관련 구속에 이르기까지 MENA 지역의 퀴어 커뮤니티는 이러한 새로운 사이버 반 퀴어 정책으로 공격을 받고 있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오·고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들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퀴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본 연구는 모로코, 이집트, 레바논 및 이라크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상에서 LGBTQ+ 커뮤니티에 어떠한 공격이 있었고, 그들이 MENA 지역의 증오 캠페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았음.

세션 3

지역 사례: 대한민국

- 세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의 사례를 다루었음.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윤지소** 박사는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이 특히 COVID-19 이후 스토킹 및 온라인 괴롭힘, 성별 혐오 발언 및 여성혐오의 형태로 온라인 폭력을 퍼뜨리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함. 또한, 이렇게 디지털 세계가 현대 사회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언급함. 디지털 & 온라인 폭력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폭력 실태 현황, 피해 양상,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다루는 다양한 학술 및 정책 연구가 최근 10년간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 온라인 폭력의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유형화, 그리고 유형별 실태 파악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또한, 디지털&온라인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폭력의 빈도나 피해 정도에 비해 비교해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임. 연구는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최근 국내 연구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디지털&온라인 폭력의 빈도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온라인 폭력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함.
- 두 번째 발표자인 **강효원** 박사는 2020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사건을 다루었음. 정부는 피해자의 온라인 영상·동영상 삭제 지원, 법적·의료적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대응했고, 국회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정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협박, 개인정보 유출, 성적인 이미지의 불법유포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 이외의 '방관자/단순한 참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임. 발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TFSV 예방을 위한 입법적, 이론적 논의에서 방관자/단순한 참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에 대한 간극을 고찰함. 방관자/단순한 참여자의 존재가 가해자가 이러한 범죄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조장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관자/단순한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며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세 번째 발표자인 **이미정** 박사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해 발표함.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와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과의 접촉도 받아들이지만, 온라인에서 메시지와 비디오를 주고받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온라인 성 착취라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학부모와 교육 기관

은 원활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음.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는 사건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지만 피해경로, 이후 대응, 어려움 등을 보여주는 연구는 미흡함. 본 연구는 그들이 성착취를 당하게 된 경로와 피해 후 대응을 이해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섹스팅과 성착취에 대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피해자 부모, 교육기관 종사자,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경찰관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했음. 또한, 일반 아동, 청소년, 학부모도 인터뷰에 포함시켰음. 총 7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 네 번째 발표자인 **김민정** 교수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발표함.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에서 온라인상의 젠더에 기반한 증오심 표현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일베닷컴이 시작된 2009년에는 여성혐오 게시물이 대부분의 온라인 이용자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언론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어조를 알게 되었음. 이제 성별에 기반한 증오심 표현은 쉽게 발견되며 일부 청소년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음. 또 다른 추세는 일부 유튜버가 사람들의 마음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한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 및 사용자 댓글 섹션에 혐오성 댓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윤을 얻는 것임. 연구는 한국의 온라인 젠더 혐오발언에 대한 대중적 담론에서 두 가지 문제적 틀이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함. 첫째, 성별에 기반한 증오심 표현의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있음. 이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언론이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임. 그 결과, 젠더에 기반한 증오심 표현은 2015년 유럽평의회에서 정의한 성차별적 증오발언으로 이해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으로 간주됨. 둘째, 증오심 표현에 대한 규제 노력은 종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으로 이해됨.

세션 4 유럽 사례 & 대안적 공간

- 네 번째 세션은 ‘유럽의 사례 및 대안적 공간’이라는 주제를 다룸.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Elisabetta Stringhi**는 이탈리아 사례에 대해 발표함. 성적인 이미지의 무단 유포를 범죄화하자는 요구는 이탈리아 형법 612조의 채택으로 이어졌음.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 또는 비디오의 불법 배포"로 불리는 이 문서는 해당 콘텐츠의 1차 및 2차 유포를 모두 다루고 있음. 법령 No. 139/2021은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해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보호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에 따르면 기관은 해시 비교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의 핑거프린팅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동의 없이 은밀한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했음.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는 딥 페이크 현상과 관련하여 해석이 불명확하며, 예방 교육 조치 역시 미흡함. 사이버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법/제도와는 달리 학교나 직장에서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폭력 방지 센터에서도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시행하지 않았음. 최근 비동의 성적 촬영물

다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수익 창출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여전히 적극적임. 연구는 이탈리아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과 현실 사이 간극을 지적하고, 예방 및 지원 조치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두 번째 발표자인 **Goran Livazović & Igor Vuletić**는 크로아시아 섹스팅 문제를 다룸.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청소년의 섹스팅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함. 구체적으로, 14-22세의 청소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크로아티아 청소년의 섹스팅과 위험한 성행위를 조사하였음.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가족, 학교 및 또래 관계), 미디어 사용 및 콘텐츠 관심사, 섹스팅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었음. 결과는 청소년 섹스팅 가해자의 동기, 활동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련 정보를 제공함. 또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섹스팅 및 관련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법 및 입법 문제로서 섹스팅에 관한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방 전략을 더 잘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세 번째 발표자인 **Emma Bond & Andy Phippen**는 영국 대학 내 온라인 폭력 문제를 다루었음. Office for Students(OfS)는 영국 대학에서 괴롭힘과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과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음. 일부 대학이 온라인 괴롭힘과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후 폭력 실태 및 대응책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음. 최근 조사는 여전히 온라인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대응 방식 등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고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발표는 영국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온라인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지침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음. 또한 이사회, 고충처리 위원회에 온라인 폭력 대응을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줌. 마지막으로 발표는 OfS의 지원으로 개발된 무료 리소스인 Online Safeguarding Tool이 대학 스스로 온라인 폭력 피해 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떻게 유용한지 간략하게 설명함.

□ 마지막으로 **Danielle Borges & Renata Vaz-Shimbo**는 브라질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브라질의 온라인 허위정보 네트워크는 양극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긴장을 증폭시키며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허위정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브라질에서는 대법원(TSE)의 판례법과 대법원(STF)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있었음. 2020년에는 허위정보 퇴치를 위한 법률 초안1(가짜 뉴스에 관한 법령 초안이라고도 함)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유럽연합(EU) 역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2018년 유럽연합(EU) 허위정보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채택하였음. 발표는 먼저 브라질의 정치적 허위정보와 온라인 폭력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비교법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EU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브라질 법률 초안에서 허위정보의 정의, 범위, 법적 구제책을 알아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

음.

세션 5

온라인 폭력 대응

- 네 번째 세션은 ‘유럽의 사례 및 대안적 공간’이라는 주제를 다룸.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는 **Holly Taylor-Dunn**였음.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VAWG)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관심을 받고 있음.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교차하는 영역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분석함. 영국의 한 경찰서의 시범 프로젝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는 이러한 범죄를 식별, 조사 및 기소하는 방법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함. 구체적으로 연구는 가정폭력 사이버 스토킹 범죄 파일럿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디지털 증거 수집에 대한 훈련을 받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받은 전담팀이 관여하여 수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두 번째 발표자인 **Ángel Gordo López & M. José Rubio Martín**는 디지털 젠더폭력을 탐지하고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연구는 법의학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 언어적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단어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디지털 환경이 어떠한 특정 언어적 관행과 폭력적인 젠더 상호작용을 처리하는지 보여줌. 지난 10년간 디지털 폭력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이러한 알고리즘 작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마지막으로 **Roni Rosenberg**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비동의 영상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해 발표함. 최근에 비동의 영상의 유출 및 확산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매우 활발함. 통상 여성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특성이 있음. 반드시 복수를 위해 유출하는 것은 아니고, 유희, 이윤 취득 등이 목적인 경우도 있음.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배포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한편, 리벤지 포르노는 주체성 상실, 존엄성 훼손, 정신의학적 문제,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다양한 결과를 낳음. 2013을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 중에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안이 도입된 주는 30%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46개의 주가 리벤지포르노를 처벌하고 있음. 다만, 해악을 의도한 증거(intent to harm)가 있어야 하는 경우, 혹은 방조(negligence)만으로 충분한 경우 등 그 내용이 다양함. 또한, 이러한 영상을 음란물로 구분하는 경우, 사생활 (privacy)로 구분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음. 거의 모든 주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문제로 보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있음. 향후 표현의 자유 논리는 가해자 권리보다는 피해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발표를 마침.

4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및 시사점

○ 연구진 간담회

- Open University와 KWDI의 연구진이 만나 인문사회과학 연결 프로그램 (UK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 arts, and humanities connections)의 도입 배경 및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본 프로그램은 한국과 영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영 연구진 간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및 한국 측 파트너 기관에 기대되는 역할, 공동연구 계획(안), 공동 출판물, 공동 세미나 및 회의와 같은 예상되는 다양한 결과물에 대해 논의함. 2023년 본원 주최 학술대회, 연구 산출물 도출을 위한 영국-한국 측 연구자 간담회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국제 학술대회

- 일상적인 기술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의 정도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에는 격차가 존재함. 다수의 국가들이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에 따른 영향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개혁, 법 집행,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 규제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지역별/국가별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의 경험, 경향 및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활성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본 학술대회는 ICT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이를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젠더폭력에 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었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지역 참가자 발표를 통해 ICT 매개 젠더폭력이 각 국가에 만연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각 국가가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양상도 공통적임을 알 수 있었음.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최근 디지털 폭력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등 법제도적 대응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